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8월 셋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5.1%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24.9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1.8% WoW), 소맥(+2.5% WoW), 대두(+4.2% WoW), 원당(-3.4% WoW) 기록. 옥수수는 미-중간 무역협상과 NAFTA 재협상 기대감에 가격 전주 대비 1.8% 상승. 미국 주간 총 수출 판매량 5,450만 부셀로 양호한 수출 수요를 보이며 가격 상승 지지. 소맥은 미-중간 무역협상과 NAFTA 재협상 기대감에 가격 전주 대비 1.8% 상승. 미국 주간 총 수출 판매량 5,450만 부셀로 양호한 수출 수요를 보이며 가격 상승 지지. 대두는 현재 중국은 미국 대두에 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으로 미-중간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따라 대두 관세 조정 가능성이 부각되며 가격 상승. 원당은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진 상황이 지속. 터키 금융위기와 함께 신중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미 달러화 대비 해일화 약세 기조 역시 원당 가격 하락 압박 요인. 중국 최근 라이신 공장 재고 압박이 완화되며 시가 꾸준히 인상 중. 최근 몇 개월 동안 라이신 수출 크게 높은 수준 유지. Dongxiao 9월 신공장 가동 예정. Wanli Runda 9월 공장 가동 예정. Qifeng 10월 라이신 생산 예정. Chengfu 다음주 내 생산 재개. Fufeng, Baicheng도 4분기 라이신 생산 가동 예정. 메타오닌은 시장 공급 과잉 상황하에 최근 가격 하락.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유리한 상황. Ningxia Ziguang 7월 중순에 계획된 15일간의 유지 보수 일정 진행 중. CJ 말레이시아 메타오닌 공장 7월 초 ~ 8월 중순 동안 유지 보수 계획으로 공급 과잉인 중국 국내 메타오닌 공급 완화되며 시장 안정 전망. 쓰레오닌은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량 감소했으나 재고 압력은 여전히 상황. 약세 기조 유지로 전주 대비 0.6% 하락. 최전율도 하락 중. Yipin 도 생산 보류 상태. Wanli Runda는 9월 생산 재개. 트립토판은 생산 감축으로 인한 제한된 재고와 중국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안정 전망. 일부 제조업체 9월 생산 재개 예정

국내 이벤트는 1. 오리온, 제주용암수 지분 60% 취득해 '19년 상반기 기능성 음료 중국 출시. 5년간 연평균 14.8% 성장한 중국 프리미엄 생수 시장 공략 2. 라면, '18년 1분기 용기면 매출 규모 2,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 1분기 봉지 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에 그침 3. 매일유업, 국내 매출 1위 RTD커피 '바리스타를스' 중국에서 연간 1,000만개 판매. ASP 1,700원 가정시 '18년 매출 170억원 예상 4. 보해양조, 8/22일부터 '보해 북분자' 출고가 10%인상. 북분자의 재배면적 감소로 6년만의 가격 인상 단행 5. 하이트진로, 전국 20여개 미군부대 영내매점(PX)에 참이슬, 매화수, 자몽 에이슬, 청포도에이슬 등 납품 시작 6. 농심, '18년 상반기 생수 '백산수'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해 340억원 기록. 폭염으로 인해 6~7월 두 달간 매출 24% 급성장

2. 금주 전망

음식료: 2Q18 Review 대부분 실적 기대치 하회하며 부진한 실적 기록. 실적호조 대상, 빙그레, 기대치 부합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대상 연결기준 매출액 전년수준 유지, 별도기준 1.8% 성장.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47.9%, 별도기준 38.7% 성장. 별도 식품은 소재, 김치, 편의식품류(HMR)가 외형성장을 주도. 수익성은 광고/판촉비 등 비용 통제 효과 반영. 해외는 PT미원 전분당 성장으로 영업이익 전년도 4억원 적자에서 18년 +23억원 달성. 별도 실적의 비용 절감 노력과 PT미원의 전분당 성장이 실적 성장 주도. 빙그레 매출액 3.4% 증가(전년동일기준, 17년 숫자 변경). 영업이익 81.1% 증가로 호실적 달성. 7~8월 빙과매출 호조 지속 중. 2분기 절감된 마케팅비 지출이 3~4분기 예상되지만 매출 흐름과 감안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 흐름 지속성 있다고 판단. CJ제일제당 전체 숫자는 컨센에는 부합 농산물 원재료 부담으로 가공식품 수익성 하락이 아쉬운 실적. 소재 식품은 원당 하락 효과와 실패 시기 도래 영향으로 영업이익 200억원 달성하며 고성장. 생물자원은 시세 회복효과로 예상치 상회하며 177억원 기록 가공식품 부진 상생. 생물자원은 하반기 전망 긍정적. 해피바이오 실적은 3분기 저점 형성 후 4분기 개선 기대. 3분기 가공식품 부문은 추석 비용 선반영까지 더해지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고마진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 M&A 성공 여부가 추가 향방 결정할 전망. 매일유업 매출액은 회계변경 영향으로 2% 감소했지만 실질 소맥 성장 흐름 유지. 영업이익은 별도기준 189억원 기록 하며 컨센에 소맥 하회. 중국 수출 분류, 원유유, 상하목장 등 매출성장 흐름 지속.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 지속 예상 오리온 중국 매출액이 기대치를 약 200억원 하회하는 등 기존 제품 매출 회복 지연이 아쉬운 실적. 영업이익과 컨센서스의 차이는 중국의 일회성 비용 120억원(중국 신제품 입점, 판촉 비용) 반영 때문. 하반기 중국은 국경질, 추석 도로로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예상되지만 다수의 신제품 출시로 비용 집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 중국은 기존 제품의 더딘 매출 성장. 중국 외 지역은 완만한 매출/이익 성장 예상으로 하반기 회복 속도에 기대감 낮아질 전망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오리온 (271560)

2Q18 실적은 중국 매출액이 기대치를 약 200억원 하회하는 등 기존 제품 매출 회복 지연이 아쉬운 실적. 영업이익과 컨센서스의 차이는 중국의 일회성 비용 120억원(중국 신제품 입점, 판촉 비용) 반영 때문. 하반기 중국은 국경질, 추석 도로로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예상되지만 다수의 신제품 출시로 비용 집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 중국은 기존 제품의 더딘 매출 성장. 중국 외 지역은 완만한 매출/이익 성장 예상으로 하반기 회복 속도에 기대감 낮아질 전망. 중국은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48.2%, 현지통화 기준 +43.2%. 카테고리별 성장 파이 +36.3%, 김 +26.6%, 비스킷 +47.1%, 스낵 +62.2%, 카테고리별 비중 파이 33.3%, 김 6.2%, 캔디 1.6%, 비스킷 15.8%, 스낵 43.1%. 베트남은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4.1%, 현지통화 기준 +9.5%. 카테고리별 성장 파이 +8.4%, 비스킷 +38.6%, 스낵 -13.9%. 초코파이 14% 성장에 힘입어 파이프 성장 지속. 비스킷 상어밥 고성장 영향으로 40% 성장. 러시아는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21.0%, 현지통화 기준 -11.7%. 딜러 구조개편 완료로 딜러 조정에 따른 매출 감소는 완화 예상. 국내는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4.7%, 영업이익 전년수준 유지. 꼬북칩, 썬칩, 생크림파이, 마이구미(복숭아) 등 신제품 판매 호조로 매출 성장 견인

농심 (004370)

2Q18 연결 매출액 -0.7%, 국내 법인 -3.7%, 해외법인 +12.9% 기록. 회계변경과 내수 라면 매출 부진으로 전년비 소폭 감소. 연결 영업이익은 제조 원가와 판관비 부담으로 전년비 64.6% 감소하며 부진. 최근 소맥 가격 급등은 부담 가중 요인이 아니며 부재료(용기, 종이 등) 원가 상승이 원재료 부담의 주 요인. 18년 라면 신제품 부진으로 라면 점유율 전년도 55.2%에서 52.9%로 하락. 국물 라면 성수기(4분기) 전까지는 점유율 회복 지연, 비용 부담 증가 예상. 국내는 별도기준 총매출액 1.3% 증가. 국내 라면시장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라면매출 2.6% 감소. 스낵사업은 3.8% 증가. 기존 제품의 플레이버 전환 효과가 매출 확대를 견인. 라면 부문은 점유율 상대적으로 경쟁사 매출이 늘면서 소폭 하락. 스낵 부문은 스낵은 소맥류 스낵 판매가 감소하며 -0.9% 기록. 점유율은 매출기준 31.5%, 볼륨기준 35.1%. 국내 음료는 폭염 영향으로 6.2% 증가. 카프리션 62% 성장, 백산수 17.1% 성장. 해외 부문은 수출은 451억원으로 15.2% 증가. 해외법인(일본/호주) 판매 물량이 크게 증가. 유럽 및 동남아 시장은 견고한 성장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8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8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8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